

아직 활동성 만성간염기에 있는 환자는 약 90%가 10년 이상 생존할수 있었으며 그중 60%는 현재 완치되어 생업에 종사 하고 있다.

간경변증은 심한경변증 즉 말기에 이르기 전 만성간염기에 진단되어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 죽지 않으며 완치유도 가능한 병이다.

<필자=가톨릭의대 내과 교수·의박>

◆ 닥터·김의 임상수첩

어린이의 가짜 병

원인불명의 열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국민학교 5학년 남자아이.

돌연 팔다리가 마비되어 걸을수가없게시리 발작이 2, 3차 일어나는 바람에 겁에 질려 찾아온 13세의 여자아이.

팔다리의 손가락 발가락끝이 새빨강게 되어서 아프다고 찾아온 11세의 여자아이.

마치 수막염(髓膜炎)을 의심케하는 증상들이 나타나 깜짝 놀랜 4세의 여자아이.

그런데 이런병들이 알고보니 모두 가짜병들이었다면 모두 놀랄거다.

이것은 모두 심인성(心因性)질환들. 진찰실에 있으면 이런 환자들이 심심함게 찾아온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의 어린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행복스러운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면 더욱 불행해진 일면도 있다. 태어나서부터 겪어야하는 문화적 스트레스가 그것. 어찌보면 문화가 없었던 옛날의 평화스런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행복을 누리었을지도 모른다. 현대의 부모들은 어린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는 일에 지혜를 짜내어야겠다.

당
노
병
은
고
칠
수
있
나



■ 김 응 진

일반적으로 원인을 잘 알수 없는 질병이나 체질(體質)로 일어나는 질병은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암(癌), 고혈압(高血壓) 및 당뇨병 따위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된다.

나면서부터 걸리기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발병

당뇨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병은 아니고 나면서부터 걸리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만증(肥滿症) 때문에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도 그 하나이다. 당뇨병이 되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비만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뇨병이 되고 마는 것이다.

비만증외에도 감염(感染)으로 고열(高熱)이 난다든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과로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번 임신(妊娠)을 되풀이한다든지 하면 발병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흔한 것은 비만증이다.

체질을 미리 발견하는 방법은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으나 아직 불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체질은 유전(遺傳)하므로 양친부모, 형제자매, 자식들등 혈연자(血緣者)에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가 크게 참고가 된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당뇨병은 체질과 관계있는 질병이고, 이 체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므로 체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당뇨병에 걸리면 완치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완치가 없다는 뜻에선 나쁜 병임에는 틀림없으나 다행하게도 올바른 치료를 계속하기만 한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없이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치시력(視力)이 약한 사람이 안경(眼鏡)으로 불편없이 살아가듯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물론 장수(長壽)할 수도 있다.

당뇨병의 치료법으로는 식사요법과 약물요법이 있다. 우선 식사요법을 한 두달 실시하고나서 치료효과를 뜻대로 거둘 수 없다면 그 때에가서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따라서 모든 치료의 기본은 식사이다.

영구히 완치가 없는병 항상 치료하고 근절해야

올바른 치료로서 몸의 컨디션을 바로 잡으면 건강인과 꼭 같은 명랑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잠거나 위장병같은 것과는 달라서 치료에 의하여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고, 당뇨병의 경우에는 치료를 중지하면 다시 금 뒷거름 쳐서 악화되고 만다. 그래서 완치가 없는 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도가 심했던 사람이 가벼워지거나, 약물을 필요로 하던 사람이 식사요법만 가지고 치료할 수 있게 되거나 하는 때는 있다. 그러나 식사요법만은 영구히 계속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적당한 운동이 가장 중요해 몸무게를 정상으로 맞추도록

많은 질병에 있어서는 보통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나 당뇨병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식사요법 버금가는 치료법이 된다. 집안일, 산책, 등근 따위가 모두 운동인 것으로 어떤 특별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필수록 온 몸을 전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상쾌한 공기속에서의 라디오체조, 미용체조등이 권장할만 하다. 어떻게 생각나서 때때로 운동을 심하게 할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하여 좀 피로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운동을 일과로 삼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 쓴 바와 같이 비만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사람이 많은 데, 이런 사람에서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몸무게를 정상(正常)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체중조절은 식사요법의 제1보가 된다. 다시 말해서 몸무게를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만이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치료법이다.

합병증 생기면 위험 인슈린투여는 나중에

당뇨병의 약물요법에는 내복약 사용과 인슈린주사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식사와 운동요법으로 치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내복약 요법을 겸용한다. 1~2개월 뒤에도 바라는 대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슈린주사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당뇨병을 치료않고 내버려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안에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같은 혈관병을 일으켜서 신경, 망막(網膜), 신(腎), 심장등의 틀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생기기 마련이며, 이때문에 말년에 심한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천수(天壽)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서울의대 내과교수·의박>

소위 「신경통」이란 병



■ 崔 吉 洙

좌골 신경통(坐骨神經痛)의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신경통이란 말초신경의 분포영역에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대체로 신경통에서 볼수있는 아픔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간헐적이면서 발작적이고 매우 예리한 것이 특징이다. 신경통은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발생할수 있다. 그 발생부위에 따라서 두부에 발생하는 신경통, 몸체에 발생하는 신경통, 그리고 사지에 발생하는 신경통등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사지에 발생하는 신경통 그 중에서도 좌골신경통에 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